

서양 복식

참고문헌: 서양복식문화사, 예지각, 2008

고대복식-메소포타미아 복식
페르시아 인

명칭	특징
캔디스	- 소매가 있는 ()의 의복, ()에서 착용, 후에 페르시아의 관복이 되었음
솔	- 단에 수를 놓거나 솔을 달아 양 어깨에 걸치거나 왼쪽 어깨에 걸치고 왼쪽 팔에 늘어뜨려 입었음

고대복식-메소포타미아 복식
수메르 인

명칭	특징
튜닉+ 솔	- 남녀 모두 스커트+맨틀(망토, 솔)을 입고 있음 - 카우나케스를 입었음(겉에 솔이 여러층으로 늘어져 있는 직물) - 직조법이 발달되기 전에 털가죽을 그대로 의복재료로 이용, 솔이 바깥쪽으로 층층으로 늘어져 보이거나 고리로 만들어 짜냈을 것으로 추정 - -맨틀이나 케이프도 양어깨가 덮이게 입거나 왼쪽어깨가 덮이게 입었음

고대복식-메소포타미아 복식-메소포타 인의 머리와 머리장식

명칭	특징
머리와 머리 장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 인들은 수염과 머리를 길렀으며 그 머리를 머리 꼭대기에서 묶거나 머리띠로 감발하여 남은 머리를 어깨 위에 늘어뜨리기도 하였음 - 후기에는 머리를 깎고 수염도 잘랐으나 신들은 여전히 기르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음 - 이 당시 여자의 머리장식은 매우 다양하였는데 머리를 길게 묶어 ()으로 정리하여 망이나 주름 잡은 천으로 싸움 - 관모로서는 대체로 주름을 잡은 작은 토크나 한 번 접어서 이마에 꼭 붙여 두른 ()을 사용함 - 바빌론의 남자들은 긴 머리칼을 뜨겁게 달군 쇠꼬챙이로 단단하게 컬하여 어깨에 늘어뜨림 - B.C. 1200년경 아시리아 자유민인 기혼녀는 외출 시 ()을 필히 착용하도록 법문화하였음 -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 대부분 자연스러운 두발형태를 유지하여 머리칼의 풍성함과 겹쳐서 살릴 수 있는 표면효과에 치중했음을 알 수 있음 - 종교적 상징이 흔하지 않았음

고대복식-크레타 복식

명칭	특징
로인 클로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판지 길이의 로인 클로스로 앞쪽 끝이 예리하게 만들어져 있음(가장 단순한 스타일) - 끝이 뾰족한 삼각형 모양의 2개의 천을 앞뒤로 하나씩 둘러 입는 로인 클로스로서 중앙에 늘어진 삼각형 끝이 위로 올라가서 ()을 이룸 - 남성의 성기를 보호하는 앞가리개가 있고 뒤에는 엉덩이를 가릴 수 있는 천이 붙어 있음
블라우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크레타의 여성은 몸에 꼭 맞는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유방을 완전히 노출시켰음
스커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여자들이 평상시에 입었으며, ()모양으로 수평의 () 디자인이 많았음 - 스커트에는 다양한 무늬가 있었음
에이프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여자들은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입고 그 위에 장식적인 목적으로 ()의 에이프런[더블 에이프런]을 앞뒤에 둘렀음
코르셋 벨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남녀 모두 허리를 가늘게 조이기 위해 ()이나 ()으로 만든 코르셋 벨트를 사용함
튜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짧고 좁은 소매가 달린 옷으로 남녀 모두가 () 때 입었음

크레타인의 머리와 머리장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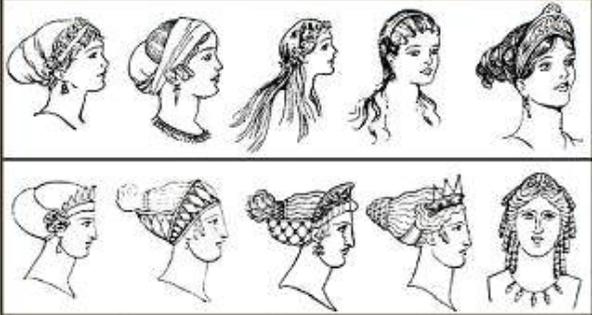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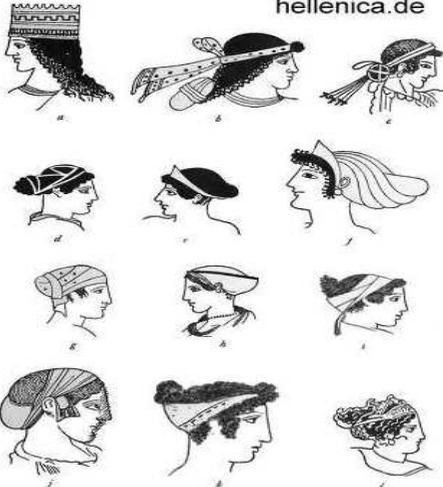
-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오히려 길게 기른 머리를 컬하거나 땀아서 어깨에 늘어뜨리거나 머리꼭대기에 () 금속두식으로 고정시켰음
- 여자들은 대체로 모자를 쓴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음. 이들 모자 또한 상당히 높고 자주 층이 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높은 캡, 뾰족한 모자, 베레, 터번 및 일종의 삼각모와 유사한 형태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이 다양하며 때때로 장미나 깃털, 리본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음
- 사여신을 중심으로 한 크레타의 장식미의 근본 모티브가 나선에 있었고 남녀 모두 인체상의 급한 곡선의 흐름을 강조하는 데 있었는데 그들의 머리 형태 또한 구불구불한 곡선의 인상이 어느 지역보다 강함

고대 그리스 복식

명칭	그림자료	영상매체자료	특징
도릭 키톤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리아 지방의 남녀가 착용한 기본 의상으로 아케익 키톤, 페플로스 또는 도릭 페플로스라고도 함 - 아포티그마와 콜포스를 연출해내는 것으로 착용할 때 초기에는 벨트를 매지 않았으나 후에는 벨트를 한 개 혹은 두 개 또는 여러 개 묶기도 하였는데, 이때 허리띠로 인해 생긴 부풀려서 늘어진 부분을 ()라고 함 - ()로 만들었고 어깨 위에서 피볼라나 브로치, 단추로 고정시킨 것으로 중후하지만 개방적인 의복이었음
이오닉 키톤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릭 키톤에 비해 대단히 풍부하며 부드럽고 ()해지는 것이 특징 - 이오니아 지방의 남녀가 착용한 기본적인 의상으로 주로 얇은 ()이나 () 등을 사용하여 속이 비치고 주름이 많이 젖어서 더욱 여성적인 분위기
히마 티온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그리스의 남녀에 의해 사용된 두르는 형식의 겹옷()으로서 직사각형의 모직물로 만들고 착용방법은 () - 여성은 방한의 목적으로 대형의 것을 키톤이나 페플로스 위에 몸 전체를 감싸듯이 어깨에서 발목까지 두르고 작은 것은 어깨에 걸쳐 핀으로 한쪽 어깨를 고정시키기도 하였음 - 철학자나 청년들은 키톤을 입지 않고 ()을 둘렀음

<p>클라 미스</p>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대 그리스의 사각형 천으로 된 짧은 망토로 () 위에 착용 - 두꺼운 모직물로 되어 있으며 오른쪽 어깨나 앞가슴에 ()로 고정 - 두껍고 튼튼한 모직물로 되어 있어 ()나 ()들이 주로 착용
<p>피블라</p>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 두르는 형식의 옷에 이용된 ()으로 오늘날의 안전핀 모양의 것과 하트핀 모양의 것이 있는데 안전핀 모양의 것이 주로 사용됨 - 고대 그리스의 의복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

고대복식-그리스인의 머리와 머리장식

명칭	자료	특징
	 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hellenica.de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그리스 여인들은 초기에는 주로 긴 머리에 앞가르마를 타서 가지런히 빗어 뒷머리 꼭대기나 목뒤에서 ()으로 틀어 붙였음 - 스파르타 여인들은 머리를 리본으로 묶어 소위 ()으로 정리함 - 남자들은 호메로스 시대까지는 긴 머리를 했으나 페르시아 전쟁 후부터 짧은 머리를 취하게 되었음 - 초기에는 머리카락으로 이마를 두르는 복잡한 형태였으나 후기에는 금속류의 머리띠로 감발하는 단순한 모습으로 되어감 - 모자는 실용적 필요 이외 즉 여행이나 작업 외의 용도로서는 거의 사용치 않았으며, 보통 때에는 히마티온의 한 자락을 머리에 두르는 것으로 족하였음 - 농부나 목동이 사용하던 챙 넓은 페타소스, 노동자, 신부 등이 쓰던 캡형의 필로스, 스키타이 페르시아안으로부터 전수된 것 같은 프리지안 보닛 등의 종류를 볼 수 있으며, 여자들은 이외에도 히마티온과 별도로 머리 및 얼굴을 가리는 흰색 마로 만든 ()을 썼음 - 그리스의 복식은 부분적인 미보다는 ()를 추구했으며 자연스러운 인체미와 피복재료의 드레이퍼리를 충분히 활용한 데 그 특색이 있음